주인공 하나가 수십가지로 화해 돌아

☞ 19면에서 계속

릭교를 믿든지, 어른들이 믿든지 형제들이 믿든지 좋은 대로 생각하시고 사세요. 형님이면 형님과의 말 끝에 주처는 모두 개개인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집안이 잘 되지 않소, 하든지 또 손아래 동서면 동서대로 그렇게 하고. 제사는 안 지낸다, 조상들이 안 잡숫는다 하더라도 아래로는 교훈이 되고 위로는 우리의 인연 정성이 되니까 꼭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냇다 봐라, 조상님들이 잡숫지 않으니 그냥 우리도 다 치워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자손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본 게 있어야죠.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하는 걸 봤어야 되죠.

믿지 못하면 해결 못해

그래야 인연이 무엇인지 알고 자비가 무엇인지 알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걸 알고, 우리가 생시에 살아도 영령들하고 반반 섞여서 사는 것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반반 섞여서 삽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꿈에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논이 들어오지만 그걸 냉대하는 사람 앞에는 그런 의논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저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반갑고 즐겁게 해 주세요. 착하게 하면은 착하게 다 돌아옵니다. 기독교를 믿든지 가톨릭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제각기 주처는 다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으니까 어느 강당에 가든지 법당에 들어오던지 항상 주처는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는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똑바로 아시고 부처님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줄 알아야 그 부처는 그 부처대로, 이 세상 만물의 부처님이 다 한 부처님이 되죠.

▲질문자3: 스님의 하해와 같은 가르침에 따라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일은 주인공의 나툼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저희들은 항상 가설이 돼 있다는 느낌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생각하면서 저는 남자이지만 복받쳐 오는 그런 울음을 너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는 울지 않도록 관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마음공부를 접하고 작지만 경험했던 이야기를 도반들에게 전하고자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매해서 공급한 자재로 작업을 하면 중 자재불량으로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접하고 그 자재를 납품한 회사에 어떤 문제로 작업할 수 없는지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자재는 문제가 없었고 작업을 하는 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아주 든든한 빽을 믿고 '그래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내가 책임을 피하려 하지말고 이 자재를 정말 사용할 수 없으면 쓰지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쓰게 해.' 하고 정말 간절하게 관했습니다.

그렇게 던져놓고 지켜보았으나 결과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자에 지었던 저의 업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하루를 지내고 나니 하루 전만 해도 전혀 가망성이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재는 검사방법과 작업방법을 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도 복받쳐 오는 눈물이 나왔지만 돌아서서 저 혼자 주인공 감사해. 하고 놓았습니다. 그래, 주인공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여러분 모두 정진 열심히 하세요. 주인공이란 즉 자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인데 보이는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안되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게 돌아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까? 밤에는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낮에는 충족시킨 그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겁낼 게 없고 무서울 게 없고 그대로 영원히 세세생생을 얻기 위해서 한생을 놓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모두. 그래서 진짜로 믿지 못하면 구석구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걸 진짜로 믿어야 구석구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4: 저는 제주에서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수학교에 근무하면서 설마 나에게는 우리 학생들과 같은 인연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자만 아닌 자만을 하면서 살아 온 것 같습니다. 막상 제가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이는 아주 건강한 자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설마 했던 마음이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몸에는 요즘 얘기하는 아토피성 피부라는 게 성해 가지고 밤새 잠 한잠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곤해지면서 가정이 원만하질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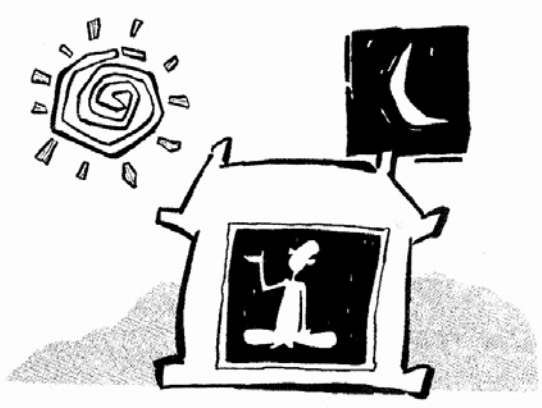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몸은 앉았어도 마음 게으르지 말도록

부처는 자기한테 있지 딴데 있지 않아

모습 달라도 마음 하나

그 인연으로 저는 저의 보살이 선원에 원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구경삼아 따라다니던 공부가 이제는 여러 도반들의 도움과 스님의 가르침과 이끌어주심에 의해서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가 일곱 살이 되는데 올해 유치원에 가고 내년에 학원에 가야 되는데 아직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야말로 자폐성 아동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들은 마음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부모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못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아이의 인연에 의해서 스님께 말씀드리게 되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닫혀 있는 우리 작은 놈의 마음을 열 수 있을 지 가르침 주십시오.

▲스님: 자식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도 자식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촛불재를 지냈죠. 초는 한 자루를 켜도 한방을 훤히 밝히죠. 한방에 가득하게 실리죠. 그러니까 그 촛불처럼 내 마음이 자식의 마음으로 가서 불이 켜지기도 하고 또 자식이 효도를 하면 부모에게 와서 불이 켜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깐 지금 이 시간부터이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울지 말고 사세요. 그래 여러분도 생시 때에 살면서 나라는 아만 때문에 모두 업신여기지 말고 자만하지 마시고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시고 모두 나와 같이만 생각한다면 더불어 같이 살아도 죄가 안 됩니다.

무조건 자기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제 삼자를 믿나? 자기 자성불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어요? 자성불이라고 한다면 또 위에다 올려놓고 자기는 밑에 내려 앉을까봐 주인공이라고 그런 겁니다. 평등하게 항상 같이 하기 위해서죠. 너만이 이끌 수 있고 너만이 공을 만들 수도 있고 공 마당을 만들 수 있잖아, 하고 열심히 관하세요. 그래야 공을 치죠. 그러고 둘 아니게 한다는 소리를 내가 가끔 하죠. 애비가 자식 묘지에 가면은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애비 묘지로 가면 부모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모래알 같은 색색가지는 어떻게 다 담당하시렵니까? 하니까 한 생각이면 되지 두 생각 가지고 하나 이랬대요. 그러면 모래알 같은 색색가지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나. 우리가 모래알이 하나가 돌아서 나가려면은 그것도 적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는 게 한 찰나 돌아가거든요. 그래 이 도리를 정말이지 꼭 믿고 자기를 꼭 믿으세요. 꼭 믿고 일거수 일투족 너만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 해결할 수 있는 건 너만이 할 수 있다고 관하세요.. 그러고 마음이 가난해서는 안됩니다. 마음이 둥글어야 되고 너와 나를 둘로 보지말고 나같이 보고 자기같이 생각하세요. 자기 같이 생각하면 뭐든지 안되는 게 없잖아요. 남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자기 같이만 생각해라 이거예요. 못하든 잘하든 자기같이 생각해서 둘 아니게 항상 믿고 해라 이거죠.

말이 씨 되니 삼가도록

옛날에 어느 스님이 저를 처음 삭발해 주시던 생각이 납니다. 네가 비구가 되든지 내가 비구니가 되든지 해야 네 머리를 깎아주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한 찰나건만, 여자 남자가 모습은 다르지만 어찌 마음이야 둘이겠습니까? 하고 어린 게 촐랑촐랑 말을 하니까, 한 쪽으로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 쪽으로는 밉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러면서 네가 동자가 못되면 내가 비구니가 되지 뭐 하시길래 잠깐 찰나인데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거추장하게 법을 청하지도 않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보험회사가 문제가 생겼는데 가면 돈을 물고 문 닫게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라는 게 돈보다도 더 중하고 말이라는 게 한마디 했으면 그 말 한마디가 금은보화를 이 세상에 갖다가 다 내던져 주는 거 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가 말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도 그 말 한마디를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나중엔 뭐 벼락을 맞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허탑하게 살면 안되죠. 내일 잘 살려고 오늘 별의별짓 다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치가 그렇지만 우리 스님들은 더 더욱 그래요.

▲질문자5: 선원을 오가며 여러 해 동안 크고 작은 체험도 수없이 해 보고 맛도 봤지만 최근 저는 평소 스님께서 늘 말씀하신 우리는 저 구름처럼 인연 따라 잠시 잠깐 모였다가 다시 흩어진다는 진리를 몸소 느낀 것을 잠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본래 서울에서 30년 넘도록 살면서 서울 아니면 못 살 것만 같았는데 제주에 내려 온 지도 벌써 15년이 되어 갑니다. 일찍부터 돈이 들어올 때는 남들이 부러울 정도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겁나게 날아가는 이치에서 또다시 오뚝이 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도 전자에 내가 빚이 많아서 빚을 갚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크게는 네 번 이상이나 지나 IMF 이후 어려울 때도 오래도록 갈 거를 짧게 많이 오는구나 느끼며 그래 주인공 죽지 않게만 치는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6년 전 이웃에 동생 되는 인연들이 둘씩이나 생겨서 어찌나 저를 챙겨주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근에 그 동생과 저는 일 때문에 동쪽의 우도 섬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자기의 친정 어머니 친정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도 섬의 이름난 갑부로 교편생활을 하던 중 마약에 손을 대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가까운 친척까지도 피해를 주고는 지금까지 행방불명이랍니다. 그 날 새벽 그 동생 꿈에 등근 해가 떠오르며 밝은 빛이 자기와 저에게로 확 비추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생각지도 않게 어머니의 친척과 친구들을 접하며 기대이상으로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한 집에 갔는데 그 곳에 아주머니들 칠 팔명이 모여 앉아 노시는데 하나도 낯설지 않고 마치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같이 친숙함이 느껴지더군요. 또 섬 끝까지 차로 가도 온통 낯설지가 않고 바다, 집 모든 기운들이 그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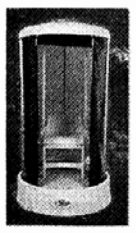
다음날 새벽 예불에 앉아 있노라니 마치 제가 그 동생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더니 제가 78년도 신혼여행 와서 동쪽 바다를 보며 이 곳에 와서 살았으면 하던 잠시잠깐 마음이 나를 이렇게 제주에 묶어 놓았을까. 이 모두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며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느낌이 한동안 오더니 그래, 평소 스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 님의 부모가 따로 없구나 하며 참회의 눈물이 마구 솟구쳐 오르더군요. 스님 제 이 감정이 우연은 아닌 것 같아 감히 말씀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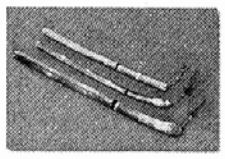
▲스님: 더불어 같이 합시다. 그래 여러분이 자식들한테나 형제들한테나 부모한테나 또 부모가 자식들한테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을 함부로 하면은 그게 그냥 씨가 되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모두 자유인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2월 18일 정기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교 최대 인터넷 쇼핑몰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2

아로마 스팀 사우나

· 특징
설치, 작동이 간편 증기 고루 분포
· 규격
100cm×90cm×172cm
· 중량 : 본체-32kg 의자-5.5kg
· 가격 1,500,000원
· 효과
원활한 신진대사, 긴장과피로, 체중 조절, 스트레스 완화, 칼로리 소모 촉진.

죽 비

· 부리죽비(대) 30,000원
· 부리죽비(소) 20,000원
·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 죽비세트 - 부리(대)부리(소) 일반형 53,000원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마디 이상 들어가며(일반형 이상) 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왕사성의 비극

비디오 (1시간35분)
· 가격 : 20,000원 (책 포함가)
부처의 자비는 고통받는 자에게 전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물기에서는 노는 아이보다도 물에 빠진 아이를 구제하는 것이다

108 나한단주

산목승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삼보죽염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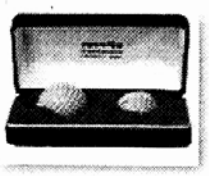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 용량 : 600g / 가격 10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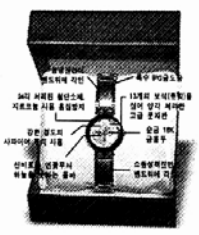
사이버 에밀레 종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배명진 교수가 첨단 공학 기술로 개발 성공한 원음 모듈은 신종의 종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였다.
· 정사각틀 에밀레종 : 210,000원
· 팔각틀 에밀레종 : 250,000원

만다라 옥침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와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 격 : 65,000원 (※ 아로마오일 10ml 포함)

만다라 옥침

양손에 쥐고 움직여 주면 손바닥에 경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증진되고 고혈압, 중풍,치매 등 고질적인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격 : 30,000원

연꽃 불자시계

※ 특별사은품 (담이시계 + 수입육(10엽주)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남성용,여성용 각각 : 119,000원

합천 전통 한과

한과 등가구 (2.75kg) 150,000원
한과 바구니大 (1.8kg) 80,000원
한과 바구니中 (1.1kg) 60,000원
한과 오동나무 (1.8kg) 50,000원
한과 잔치방 2호(0.9kg) 22,000원
한과 잔치방 3호(1kg) 33,000원
한과 잔치방 4호(1.5kg) 45,000원
경남 합천의 해인사 법경소리가 낭낭하게 들리는 가야산 자락에서 재배된 찹쌀과, 깨, 콩등 청정 원료를 사용하여 현대인의 건강과 입맛에 맞게 재현해낸 우리 전통의 과자입니다.

Dr.반다시(의자용)방석

· 반다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차원의 의자용 방석입니다.
· 2001년 신학기 30% 특별할인상품
· 할인가격 : 25,000원 (※정상가 : 35,000원)

옥(玉) 다기세트

각종 질병치료에 쓰이던 중국의 신강성 연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끊어졌으며 오늘날 여러 질병에 건강증진작용하는 한국춘천연옥(韓國春川軟玉)이 세계 유일한 제일 좋은 연옥이 되었다.
· 구성 : 다관(1p), 숙우(1p), 찻잔(6p), 찻잔받침(6p)
· 가격 : 330,000원

참선 명상 방석

· 일 반 30,000원
· 숯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갈대 쥬스 잔 세트

· 흰색바탕에 갈대문양의 이미지는 순백의 이미지에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형태 그자체입니다.
· 가격 : 22,000원

백화향 선물세트

· 백화향 + 신자단향 + 천연목향 + 향꽂이
· 가격 : 50,000원